

강다니엘 컴백 “다시 음악하게 돼 행복”

그림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사진)이 24일 오후 6시 첫 번째 미니앨범 '사이언'(CY-AN)을 발표하며 컴백했다.



강다니엘은 “새 앨범을 내고, 음악과 무대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행복합니다. 컴백이지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기도 해요.” 라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 '터칭'(TOUCHIN)을 발표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2월 초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신보는 강다니엘 음반 시리즈인 '컬러'(COLOR) 3부작의 첫 번째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 '투유'(2U)를 비롯해 '어덜트후드'(Adulthood), '젤러스'(Jealous), '인터뷰'(Interview), '터칭' 등 다섯 트랙을 담았다.

강다니엘은 “타이틀곡은 꿈을 향해 달려가다 지쳤거나 조금 외로운 기분이 드는 사람에게 ‘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 라는 메시

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의 컴백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는 그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악방송이 무관중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모든 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힘든 시간을 모두 함께 이겨내고 계실 텐데, 이번 제 앨범의 음악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며 자신의 음악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 극장들, '세금 혜택' 등 정부 지원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 미국 내 극장들도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미극장주협회(NATO)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영화관 산업과 그 고용인들은 산업과 1만 명의 종사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가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즉각적인 지원의 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NATO의 요구 사항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지출되는 고정비용으로 인한 자금 부족 상황을 완화할 대출 담보 ●고용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혜택 ●극장 폐쇄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경감 ●영화 산업 회복 후 손실 복구를 할 수 있는 세금 제도 등이다.

NATO는 자체적으로도 예산 100만 달러를 극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스텔라'(2014), '덩케르크'(2017) 등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배우, 스튜디오, 화려함이지만, 영화 산업은 극장 입구 직원, 매표소 직원, 광고 판매 직원, 화장실 청소부 등에 관한 것이다.”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월급 대신 시급을 받으며 영화관에서 일한다.”고 했다.

놀란 감독은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몇 세대 동안 우리에게 위안을 줬다.”며 “극장 직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외에도, 상영관업 공동체에는 영화사들과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기본화질 한달간 하향 적용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지난 24일부터 전 세계 유튜브 동영상의 기본 화질을 고화질이 아닌 표준 화질로 낮춰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증가한 데 따른 인터넷 시스템의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라별로 세부적인 변경 개시 시점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한 달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각국 정부나 네트워크 운영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의 경우에는 기본화질이 480p 이하로 설정된다. PC에서는 720p 이하이다. 본래 유튜브는 인터넷 연결 속도와 동영상 플레이어의 화면 크기, 원본 업로드 동영상 품질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능한 가장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도 낮은 화질로 설정된다. 다만 영상 시청자가 고화질로 시청을 원할 경우, 수동으로 화질을 조정해서 시청할 수는 있다.

앞서 유튜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서비스 이용량이 많이 늘어난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본화질을 변경한 바 있다.

숫자퍼즐 정답

9	2	4	1	3	6	5	8	7
1	3	5	7	4	8	2	6	9
6	7	8	9	2	5	1	3	4
4	6	3	2	7	1	8	9	5
5	9	7	8	6	4	3	1	2
8	1	2	5	9	3	7	4	6
2	4	1	6	8	7	9	5	3
7	5	6	3	1	9	4	2	8
3	8	9	4	5	2	6	7	1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내 팔자(八字) 타이요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의 원만한 덕을 입으며 사는 것도 타고난 팔자에 배우자 복(福)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운(運)의 흐름에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기운이 원만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오래 전에 40대의 부인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 팔자가 그 부인의 팔자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에 먹을 복은 있으나 자식을 둔 후에 배우자와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紛亂)이 따르는 사주가 되고 또 운(運)의 흐름도 배우자의 덕을 돕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편은 학력도 있고 배운 사람인데도 평생 제대로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까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바람까지 나서 현재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팔자가 다시 건넌 말은 “지금 남편이 그러는 것은 꼭 남편만의 탓은 아닙니다. 부인이 타고난 사주팔자 자체가 원만한 배우자의 덕(德)이 박한 사주가 되고 또한 현재 부인이 지나가고 있는 운(運)의 흐름도 배우자 기운을 돕지 못하는 운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남편이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만나서 살았더라면 멀쩡하게 남편의 역할을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 약 4~5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이 다가오게 되니 그 동안의 모든 불행을 남편의 탓으로만 돌리고 무조건 남편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팔자 타이요”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이해한다면 참을 것도 없으니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 전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다시 팔자와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오래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 합니다. 남편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고 얼마 전에 남편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오히려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액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액 탐사 전문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